

원색에 담긴 꿈·사랑·모정...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여류화가

삶과 그림세계

“내 과거를 열심히 살게 해 준 원동력은 ‘꿈’과 ‘사랑’과 ‘모정’ 세 가지 요소였다. 꿈은 그림이라는 예술과 함께 호흡해왔고, 꿈이 아닌 현실로서도 늘 내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 준 것이 사랑과 모정이었다.”(자서전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중)

같은 화려하고 주목받는 삶을 살았지만 내면에는 슬픔과 한을 간직한 천경자 화백(1924~2015)의 슬픈 전설은 91페이지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었다.

8월 세상을 떠난 천 화백은 독자적인 화풍으로 한국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화가이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여류화가였다. 또 자서전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등 베스트셀러를 집필한 문학인이었으며 파격적인 화풍과 패션으로 팬들을 형성했던 스타작가이기도 했다.

1924년 고흥읍에서 태어난 천 화백은 외할아버지 밑에서 서예와 수묵화를 배우며 천부적인 재능을 드러냈다. 1941년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전남여고 전신)를 졸업한 후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에 진학한 그녀는 이 무렵 외할아버지가 지어줬던 옥자(玉子)라는 이름을 버리고 경자(鏡子)라는 이름을 쓴다. 유학시절 외할아버지를 그린 ‘조부’로 제 22회 조선미술전람회(이하서 인상, 국내 무대에 데뷔했다.

화려한 명성에 가려진 그의 그늘진 삶은

문필가·패션 리더로도 명성

이혼·여동생 잃고 그린

‘생태’ 미술계 신선한 충격

1991년 ‘미인도’ 위작 논란

1998년 작품 기증 도미

화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타고난 화가였던 천 화백은 이혼, 불륜, 여동생의 죽음 등 굴곡 많은 삶을 원시적이면서도 서정적인 화풍으로 승화했다.

1944년 귀국길에 만난 첫 남편 이철식과 결혼을 했고 1남1녀를 낳았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우고 1951년 한국전쟁 중 여동생 옥의 시마져 폐병으로 숨지자 큰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이때의 아픔을 표현한 작품 ‘생태’(1951)는 천 화백이 화단에서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된다. 35마리의 푸른 독사들이 얽히고설킨 섬뜩하고 징그러운 모습은 미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그러다 당시 신문기자였던 김남중을 만나 1남1녀를 두게 되지만 천 화백은 몇몇 하지 못한 관계에 대한 자괴감 등으로 고통의 나날을 이어간다. 천 화백의 작품에는 그의 자녀들이 자주 등장한다. 가정사에 아픔이 많은 만큼 자신과 자녀에 대한 사랑이 깊었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천 화백 그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여인의 모델은 자신이다. ‘탱고’ 흐르는 황혼’(1978) 속 담배 피는 여인, ‘황금의 비’(1982)에서 당당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 등은 편견과 시선에 당당히 맞서는 작가의 분신이다. 여인의 고독과 애절한 사랑,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초현실적인 분위기, 미국에 대한 동경, 자신을 지탱하려는 나르시시즘이 복합적으로 묻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언론과 인터뷰하던 그는 같은 시대를 살던 문인·화가들과도 친한 우정을 나눴다. 또 ‘여인소묘’ 등 단행본 15권과 수필집 10권을 펴내 화업 못지 않은 글솜씨를 자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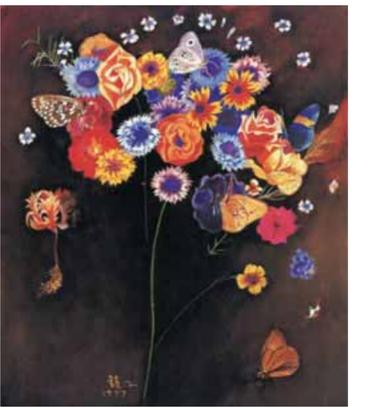
하지만 1991년 ‘미인도’ 위작 논란을 겪으며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는다. 논란은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미인도’에 대해 천 화백이 직접 위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국립현대미술관과 한국화랑협회 ‘진품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한국화단을 대표하는 여류화가 천경자 화백이 지난 8월 미국 뉴욕 딸 이혜선의 자택에서 사망한 사실이 22일 알려졌다. 천경자 화백의 생전 모습.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1977)



‘한’(1977)

천경자 화백 연보

- 1924년 전남 고흥에서 천성옥씨와 박은씨의 1남2녀 중 장녀로 태어남. 본명은 옥자
- 1937년 전남여고 입학
- 1941년 중경여자미술전문학교에 입학
- 1944년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졸업
- 귀국해 동경 재국대학유학생과 결혼
- 1946년 전남여고에서 미술 교사로 일하며 학교 강당에서 첫 개인전
- 1951년 폐결핵으로 투병하던 여동생 옥희 사망. 최초의 그림 ‘생태’를 그림
- 1954년 중경대 미술대 동경학과 교수로 임명
- 1976년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를 1년간 그려 완성
- 1978년 대한민국예술원 정회원
- 1991년 ‘미인도’ 위작 사건으로 절필 선언
- 1998년 서울시립미술관에 채색화와 스케치 93점 기증
- 2002년 서울시립미술관에 소장 전시실 ‘천경자실’ 개관
- 2003년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짐
- 2006년 자서전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와 그림에세이 ‘꽃과 영혼의 화가 천경자’ 발간
- 2007년 고흥군, 중합문화재단 천경자전시실 마련
- 2012년 고흥군이 기증받은 작품을 훼손하고 있다며 반항 소송, 고흥군 반항 결정
- 2014년 대한민국예술원, 천 화백 근황 확인 안된다며 2월부터 수당 지급 잠정 중단. 천 화백 가족은 이에 반발해 탈퇴 시 제출
- 2015년 10월 22일 딸 이혜선씨가 유가족들과 함께 서울시립미술관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

천경자 작품 만날 수 있는 곳

현재 천경자 화백의 그림을 상설로 관람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유일하다. 천화백은 지난 1998년 뉴욕에서 잠시 귀국해 인물화, 풍물화, 드로잉 등 모두 93점을 서울시립미술관 측에 기증했다. 시립미술관측은 지난 2002년 미술관 내에 ‘천경자실’을 마련하고 ‘생태’,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환상여행’ 등의 작품을 상설 전시 중이다.

2009년~2010년 광주에서도 광주시립미술관의 주도로 천경자 미술관의 건립 논의가 진행됐다. 미술관측은 당시 천 화백의 딸 이혜선씨와 수차례 접촉을 갖고

상설 전시 서울시립미술관 한곳 뿐

광주도 미술관 건립 추진 무산... 고흥은 전시실 폐쇄

광주문예회관 옛 광주시립미술관 자리에 천경자미술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당시 약 70억원의 예산을 수립했으며 천 화백측은 유화작품과 드로잉, 유품 등 2500점을 기증하기로 가계약까지 마쳤었다. 하지만 이씨가 미술관 건립과 관련, 업체 선정을 비롯한 예산 집행에 대해 전권을 요구하는 등 시 조례상으로 들어올 수

없는 제안들을 해오면서 결국 설립이 무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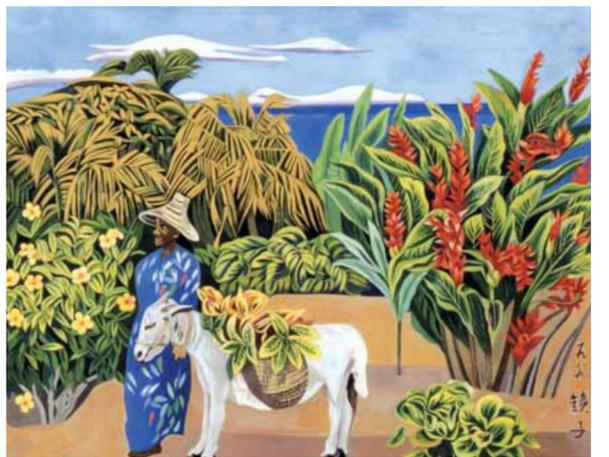
당시 미술관장이었던 박지택씨는 “천경자 미술관을 우리나라 최고의 명물 미술관으로 만들기 위해 협의했으나 무리한 요구를 해와 무산됐다”며 “또 기증하겠다는 작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던 점도 문제였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시립미술관은 드로잉 작품 20

점을 소장하고 있다.

천 화백의 고향인 고흥에 문을 열었던 천경자전시실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고흥군은 지난 2007년 드로잉 55점 등 총 66점을 기증받아 고흥군 종합문화관내에 천경자 전시실(149㎡)을 개관했다. 하지만 2010년 천 화백측이 고흥군이 작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반환을 요구했고 2년간의 줄다리기를 끝낸 지난 2012년 작품 반환과 함께 전시실도 폐쇄됐다.

그밖에 2010년 경기도 양주에 문을 열 예정이었던 천경자 미술관 역시 천화백측과 양주시의 이해가 엇갈려 건립이 무산됐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자마이카의 고약한 여인’(1989)

“여린 감성...술 취하면 눈물 바다” “사투리가 어울리는 멋쟁이 화가”

지인들이 기억하는 천경자

천경자 화백은 생전에 많은 예술가들과 교류를 했다.

광주에서 활동중인 김영태(88) 화백은 22일 전화통화에서 “천 선생이 전남 여고와 광주사범학교에서, 나는 조대부중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하며 친하게 지냈다”며 “일본에서 돌아와 외로워서인지 날 친동생처럼 대했고 나도 친누나로 여기고 따랐다”고 말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1·4 후퇴 전까진 거의 매일 금남로에 있던 고(故)김보현 선생 집에서 매일 술을 마셨다. 마음이 여린 천 선생은 술에 취하면 ‘어디로 도망가야 하나’며 울었던 기억이 난다. 1951년 천 선생의 동생이 사망했을 때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자 내가 조대부중 학생들을 데리고 도왔다.”

김 화백은 소식이 끊긴 후 홍익대 교수가 된 천 선생을 다시 만났을 때도 회고했다.

“홍익대 주최 미술대회에 학생들을 데리고 참여했을 때 천 선생이 ‘아이고

메, 우리 김영태 선생을 여기서 만나네’라며 울기 시작했고 안아줬다. 너무 큰 소리로 말해 사람들이 다 쳐다봐 부끄러웠지만 옆에 시골학교 선생인 나를 크게 대우해 주니 너무 고맙다. 이후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2년 더 만났는데 그 때마다 친절하게 대해줘 참 인간성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같은 책에서 방승인 황인용은 남도 억양이 있는 민요 자락과도 같은 목소리, 이국적인 액세서리 등으로 화백을 기억했다. 시인 고은은 “천경자는 누구인가. 그는 그것밖에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천형(天形)의 예술가다”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작품 최고가 12억서 더 오를까

작년 경매가 호당 8250만원...박수근 이어 2위

천경자 화백 사망과 관련, 미술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의 작품 가격이 올라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미술시각협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 경매시장에서 화백 작품의 평균 호당 가격은 8250만원으로 전년(1532만원)에 비해 크게 오르면서 박수근(1억 780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최고가로 낙찰된 작품은 2009년 ‘초원 II’(1978-사진)로 12억원에 팔려나갔다. 이어 1962년작인 ‘월’(圓)이 지난 2007년 11억 5000만원에 낙찰됐고, ‘막은 내리고’(1989)가 8억6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천 화백의 작품은 또 지난 7~9월 미술

경매시장에서 15억9075만원 어치가 판매되며 김환기 화백(39억7410만원)에 이어 낙찰총액 2위를 기록했다.

미술계 관계자들은 “천경자 화백은 이미 오래전에 절필 선언을 했고 유명한 그림은 매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가격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K옥션 관계자도 “천경자 화백은 실질적으로 신작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유족이 갖고 있는 작품을 내놓지 않는다면 작품 가격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회고전이 열리거나 이목이 집중되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퍼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합뉴스

